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성탄절 메시지

낮은 데로 임하신 생명의 강 예수

역사의 밤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이때에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깊은 밤에 귀를 기울여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역사의 매 사건 속에서 숨가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4대 사건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탄생 사건이요, 둘째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며, 셋째는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고, 넷째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예수 재림 사건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과 마지막 심판 사건은 성경 전체의 표지가 된다.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의 폭풍이 일어났고 복음의 홍수가 터졌으며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화산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우리 앞에 도전과 시련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199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같은 사건의 충격과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외면을 하고 저 천국만 그리워하고 있지 않았던가. 아니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저로 오염된 이 세상과 짝지어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의 문화 풍조, 가치관과 세상 정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세상은 악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 우리를 소금이나 빛이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나타낸 말씀이 아니던가. 어둠과 죄로 인해 방향을 상실하고 생명을 빼앗긴 이 세상을 우리는 더럽다고 쫓겨쳐야만 하는가. 이것은 율리 회복이나 어떤 사회 운동으로 풀려질 문제도 아니고 정치 질서나 인권 신장으로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는 스가라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민족적,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파도치는 이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 충생하여 새 사람이 된 한사람 한사람이 새가정과 새사회를 이루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

화되어 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는다.

도성인신하사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의 강, 새 것, 변화도, 능력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대 정신을 낮은 데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강으로 끌어 들여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희생과 겸손의 옷을 입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신 예수의 생명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누룩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번져 나갈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충현의 가족과 6 천만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1990년 12월

이 종 윤 위임목사

연말 연시 특별 행사 일정

우리 교회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여러 행사들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다.

행 사	일 시	내 용	장 소
성탄축하음악예배	23일(주일) 저녁 7시	설교: 김은태 목사 찬양: 실로암찬양대 대상: 전 성도	본 당
성탄전야축하예배	24일(월) 저녁 7시	설교: 윤용규 목사 찬양및특선: 초등1부~6부 찬양대 대상: 전 성도, 예배 후 산타크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을 나누어 준다.	본 당
성탄축하새벽기도회	25일(화) 새벽 5시 30분	설교: 김창원 원로목사 찬양: 교역자·장로 부부 찬양대 대상: 전 성도	본 당
성탄축하예배	25일(화)	I 부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 찬양: 초등1부~6부 찬양대 대상: 영아부~초등6부 어린이 및 부모	본 당
		II 부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 찬양: 연합찬양대 대상: 중등부 이상 전 성도 (정탄감사헌금)	
수요예배	26일(수)	I 부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 찬양: 호산나찬양대 대상: 전 성도	본 당
		II 부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 찬양: 실로암찬양대 대상: 전 성도	
교사총회	27일(목) 저녁 7시	대상: 교회학교 전 교사 주관: 교육위원회	갈릴리움
특별제직회	30일(주일) 찬양예배 후	대상: 제직 전원	본 당
송구영신예배	91년 1월 1일(화) 새벽 0시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 찬양: 연합찬양대 대상: 전 성도	본 당
교역자·장로·안수집사 청지기수련회	1월 1일(화) 오후 6시 ~ 2일(수) 낮 12시 30분	대상: 교역자·장로·안수집사	충현기도원, 본당

성탄절에 사랑의 선물 전달

농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에도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불우 이웃들을 찾아 구제의 손길을 폈다.

먼저 대내적으로 구제위원회는 성도 백 다섯 가정과 예배다부 하 생판에서 열심히 믿을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열 가정을 도왔다. 대외적으로는 청각 장애 교아들의 수용 시설인 삼성농아원에 성탄 선물과 구제비를 전달하였

다. 또 강남구청 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테헤란 노인정 다섯 군데와 강남보육원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였다. 그밖에도 성남맹인교회, 구척소, 감호소, 소년원, 나병 환자 재활원 등 30개의 기관과 피하 요원, 노방 전도인에게 구제비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은퇴 장로 송별회 가져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세 세무 장로로 봉직해오던 윤종성 장로, 임광석 장로가 연말로 은퇴를 한다. 이에 장로회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6시에 만나 출에서 은퇴 장로 송별회를 열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신 두분 장로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성 장로는 지난 65년에 시무 장로로 장립된 이후 회계 재정위원장, 자산관리위원장, 전도위원장, 예배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67년에 장로로 장립된 임광석 장로는 건축위원장, 재정위원장, 동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나사로의 죽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 11:11-15)

누구든지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죽음은 누구를 예외로 하지 아니하고 꼭 찾아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신자의 죽음입니다.

1. 죽음의 종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영히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죽는 것은 바로 형벌이 시작되는 무서운 순간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눅 16:22, 23:43).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본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초상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먼저 가십니까, 먼저 가서 섭섭합니다.’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을 “잠들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요 11:11). 그래서 11장 15절에

익한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5, 56)고 하면서 사망을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은 마음에 있는 죄를 쏩니다.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망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사망이 쏘는 화살을 맞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망이 쏘는 죄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죽음의 무서운 풍랑이 우리들을 엄습할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피난처요 만세 반석인 것입니다.

또 “잠들었도다”라는 것은 선다는 말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눈물, 고통, 수고가 모두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도다”라는 것은 또한 잠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키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려고 잠정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부활 후에 후회하는 육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어도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것만큼 위대하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당당하고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11장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강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란 반드시 우리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 12:10).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다.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온다고 했으니 기쁜 곳이 아니라 슬픈 곳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할 때에 주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고 후회를 해봐도 소용없는 자리입니다.

불신자가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지옥의 특징은 물과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죽음은 고통으로 내려 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몸만 어둡고 물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런 곳으로 끌려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라고 설명합니다. 또 생명학적으로 호흡이 중단되고 심장의 맥박이 끊어지거나, 뇌세포의 운동이 정지된 자를 죽은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과 육이 분리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되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 그들은 어둠에 있는 이들입니다. 죽음은 단순한 고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선물을 그 시간에 박탈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되다고 합니다. 성도의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요 11:11).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낮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13절에 의하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로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이유로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을까요?

첫째,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신자가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잠들었도다”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나사로, 그는 잠든 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잠들었도다”라는 것은 유익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좋고 일할 힘이 더 생기듯 유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11).

죽음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1:25, 14:6). 빛이 비취면 어둠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환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눅 7:11-17). 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눅 8:40-56).

생명을 부활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

우리들은 겉사람은 후회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롭게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보면 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마지막날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미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첫번 성탄절

정 홍 식 집사 (대학부 부감)

사실 나에게 성탄절의 첫 감격은 없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이 되면 한 없이 좋고 열심히 성가를 부르며 놀던 추억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동방 박사의 연극과 “탄일종이 팽팽...” 하며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며 어느 반이 큰 소리로 합창하는지 경쟁하였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특히 잊지 못할 인상적인 기억은 역시 “새벽송”이다. 촛불, 호롱불, 전등을 들고 같은 구역 식구끼리 집집마다 새벽에 찬송을 부르면서 선물을 모으고 교회에서 떡국을 함께 먹으며 성탄 새벽 예배를 드리던 일이다. 새벽송을 돌다가 어느 부자 집으로부터 크림 케이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다. 나와 내 또래의 아이들은 손에 크림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학부 시절에는 내가 속해 있던 노래 모임에서 병원 전도를 나갔다. 이 “노래 모임”은 원로목사이신 김창인 목사님의 가족들이 1962년 경부터 시작한 병원 전도 모임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성탄절이 돌아오면 역촌동에 있는 시립 병원을 찾아가 요양 중인 폐결핵 환자들을 위로하고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성탄 축하 카드와 선물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은 이런 활동을 위해 모금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는 뜻밖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넉넉하게 채워 주시곤 하였다.

그후 성인이 되어 호텔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나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성탄 전야 파티를 벌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없이 변질된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성탄절을 보내온 나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새로운 성탄절 선물도 받고 싶다.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찾아 오신 주님을 새롭게 모시고 살아가고 싶다.

바쁘게만 뛰어 다니는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감격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새롭게 모실 수 있을까?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도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성탄절에 드린 찬양

조 신 욱 집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던 12월이 무섭도록 찬 바람과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린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 한 달 가까이 되는 준비 기간은 나를 그 기간 내내 들뜨게 만들곤 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은교인 앞에서 발표했다. 독창과 중창, 그리고 합창, 계속 이어지는 성경 암송과 재미 있는 풍트, 그리고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게 될 영성찬 연극도 한편 연출했다. 오! 그때의 그 떨림, 그 뿌듯함이란... 그러나 이 모든 즐거운 일들도 몇 시간 후면 벌어질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비하면, 그 사건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던 것을 알게 된다.

유난히 좋아했던 성탄절 노래들을 온 밤이 하얗게 새도록 부를 수 있는 ‘새벽송’이야말로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 주었고, 무한한 꿈을 심어주었으며,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경험을 체험하게 해 주었던 위대한 사건이었다.

성탄절, 교회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키면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을 다 함께 먹고 구역별로 나는 새벽송 찬양대가 등불을 밝히고 온 교인들의 가정을 찾아

나섰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온 하늘을 춤추며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칠후 같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새벽길을 십자가가 새겨진 등불로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성도들의 집에 도착하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등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양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엄숙했고, 고요했으며, 거룩하였다. 죄악은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노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함께 느끼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다.

나는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확신하였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을 전하던 그 벅찬 감격을 잊고 지낸 지도 제법 긴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오! 주여 첫번 성탄절에 목자들이 잠결에 들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던 천군 천사들의 그 기쁘고 뜨거운 감격의 찬송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로 듣고, 또 부르게 하옵소서.”

성탄 - 그 기쁨의 좋은 소식

홍 윤 지 성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남은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딸아이를 지켜보다가 문득 나는 성탄절을 맞은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 보게 되었다. 나는 성탄절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 날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때로는 깊이 알 수 없는 암담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아픔과 고독의 이유를 명백하게 알게 해주셨다. 그 막연한 듯한 두려움이나 우울, 그리고 웬지 충만한 기쁨이 없는 생활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갚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어김 없이 찾아드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시며,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기뻐하게 해주실지, 그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그러다

가 나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찬 누가복음 1, 2 장을 읽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넘치는 기쁨과 찬송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기쁨과 찬송을 묵상하던 중 나는 갑자기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신선하고도 뚜렷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분명히 나를 포함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게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고 열매 없이 연말연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의 참 소망과 삶의 의미가 되시기에 나는 이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나신 날을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부터라도 그분께서 나신 날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지. 주님께서 내가 맺기를 바라시는 그 보람된 열매를 위하여 금년의 남은 날들을 힘껏 뛰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설계해야지.”

성탄절에 바친 작은 손길

정 진 경 (고등부 2년)

며칠 전, 어머니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17살 소년 가장’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두 동생과 함께 2만원짜리 사글세방에 산다는 그 소년은 신문, 우유 배달 등을 해서 동생들과 살아간다고 했다. 특히 어버이날, 생일, 성탄절 등이 돌아오면 부모님 생각에 무척 외로워지는 데 요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감사하게 되었고 성탄절에는 교회의 여러 분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 글을 읽고서 나는 평소에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겼고 이 추운 겨울에 불우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학교 때의 일이다. 나는 YWCA 소년, 소녀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합창단의 일원으로 여러 곳을 방문하여 공연을 갖곤 했다. 그 중에서도 한 교아원을 방문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 또 동생 뻔 되는 꼬마들이 약 100여 명쯤 있었다. 우리들은 한껏 몸을 재며 노래를 불렀고 열심히 그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은 영 즐거워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들이 귀찮다는 표정을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는 우리들이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어느 한 친구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친구의 얘기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별다른 관심도 보여 주지 않다가 성탄절이니 연말연시니 하면서 와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행사만 하고 가버리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자기들 또래의 꼬마들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친구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울적해진다고 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나의 철없는 생각과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말았다. 그 이후로도 우리들이 부럽다는 그 친구의 조그만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그들을 위해 던지는 동전이나 한방울의 눈물과 같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17세 소년 가장의 이야기처럼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어 그들을 새 희망으로 인도해야겠다.

대학부 26 일, 27 일에 고3수련회

대학부는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충현기도원에서 고3수련회를 갖는다.

대학부 지도 목사인 김해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낯날부터 예수님의 날까지”라는 주제 아래 진

행될 이 수련회에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새롭게 펼쳐지게 될 앞날을 하 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1부 성탄 축하 모임

청년1부는 성탄절을 맞아 예 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의 미를 되새기고 형제·자매간에 화 목을 다지는 행사를 마련한 것으 로 알려졌다.

“화해”라는 포토 아래 성탄 전 야인 12월 24일 성탄 전야 축하

예배 후 행해질 이번 행사는 조별 케롤송 부르기 대회, 선물 교환, 간증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촛불을 들고 교회를 돌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 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

전도회 16일에 총회

지난 12월 16일 주일 1부예배 후 본당에서는 1990년도 남녀 전 도회 총회가 열렸다.

98개에서 136개로 전도회 조직 이 확장되고 지원 교회가 25개로 많은 성장을 한 전도회의 이번 총 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본 당을 가득 메웠다.

1부 예배는 오대희 장로의 사 회와 정하우 장로의 기도로 진행 되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사도 행전 4 장 1절에서 4절을 본문 으로 “마귀가 싫어하는 것 세 가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설교를 통해 이 목사는 “마귀 가 성도끼리의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교회가 천국화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한다.” 라며 전도회원들이 경각심을 가 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 을 권면하였다.

2부에서는 한 해 동안의 사업 보고와 91년도에 봉사할 임원단 을 선출하였다.

■ 봉사의 현장

소외된 이웃 돕는 천국 백성

~ 제13교구 박윤석 권사 ~

제13교구의 박윤석 권사는 소 외당하여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을 찾아가 돌보는 일에 남다른 열 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음식을 장만하여 영등포 교도소나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요즘에는 또 시흥에 있는 “어린 양의 집”에 대한 멸한 사정을 전해 듣고 아들 전성욱 성도와 함께 봉사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양로원인 “소망 노인의 집”을 시시때때로 찾아가 노인을 위로하는 일도 잊지 않고

있다. 한번은 지하도 앞에서 행인들 에게 진도지를 나누어 주다가 주 변 환경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다.

박 권사가 자신의 형편이 넉넉 하여 이런 구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와 용돈은 절약해가며 교도소나 양로원 등 에 가져갈 떡이나 과일을 마련하 는 것이다. 그래서 박 권사는 자 연히 사치를 모르는 권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같은 구역의 세신자들까 지도 이런 박 권사의 모습을 본받

아 구제 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사람들은 소문난 곳은 많이 찾아 가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 합니 다. 이웃 사랑을 외치다가도 한 계 도우려 가자 하면 외면해 버리 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며 박 권사는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실천적 자세로 믿을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다는 박 권사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 준비 기도회 가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는 2 월 22일과 23일에 개최될 “미래 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와 김해규 목사, 대학부 교사, 학생 그리고 한국대학생선

교회(CCC) 간사와 학생 등 2백 여 명이 아침 7시에 갈릴라홀에 서 모여,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학가에 그리스도의 바 람을 새롭게 불려 일으킬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모으 고 함께 기도하였다.

정신여중고 우리 교회에서 성탄예배

정신여중고 5천여 명의 학생 들이 지난 12월 20일 오전 9시 20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이 예배에서 학생 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1과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다짐을

성경: 롬 12:1~21

요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 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찬송: 248, 460

서론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한 해 를 뒤돌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신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아쉽고 부족했던 일들이 더욱더 우리 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 기서서 찬양대원, 교사, 집사, 권찰, 권사, 장로 등 많은 직분을 새롭게 맡기 셧습니다. 어떻게 사는 생활이 참 봉사일까를 말씀 앞에서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본론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봉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 니다.

1. 헌신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잠 23:26)”

2. 헌신은 삶의 주권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3. 헌신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께 드리라”(롬 6:13)

4. 헌신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 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니라”(고후 5:14, 15)

5. 헌신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6.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데에 기초가 됩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매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눅 5:11)

7. 헌신은 순종의 기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8. 헌신은 승리의 기초입니다.

“내게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결론

우리 모두는 9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소홀했던 헌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충성스런 게 감당한다는 심정으로 밝아오는 1991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제시된 여덟 가지 항목 중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 면서 교정하고 다짐하여 봅시다.